

우크라이나 국가신용평가 리포트

2011. 7.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1
V. 종합의견	14

I. 일반개황

면적	604천 km ²	G D P	1,379억 달러
인구	45.5 백만 명	1 인 당 GDP	3,032달러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Hryvnya
대외정책	친서방 정책,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환율(달러당)	7.94

-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련에서 독립하였으며, 동유럽과 러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국가임. 철광석, 망간 등 부존자원이 풍부하며, 중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음.
- 우크라이나인(78%), 러시아인(17%)을 비롯 벨로루시인, 루마니아인 등 다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부공업지역(러시아인)과 서부농업지역간(우크라이나인)의 민족, 문화적 차이가 지역별 정치적 성향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2004년 시민혁명(일명 오렌지혁명*) 이후 점진적인 정치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0년 1월 야누코비치(V. Yanukovich) 대통령이 당선 이후 연립정부 구성에 성공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 * 오렌지혁명: 2004년 선거 당시 야당을 상징하는 오렌지색으로 여당의 부정 선거를 규탄하여 재선거를 실시하게 했던 시민혁명
- 대외적으로는 친러 성향의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러시아와의 관계가 점차 개선되는 한편, EU와의 협력관계도 강화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e
경제성장률	7.3	7.9	2.4	-15.2	4.7
재정수지 / GDP	-0.7	-1.1	-1.5	-6.5	-7.0
소비자물가상승률	9.1	12.8	25.2	15.9	9.4

자료: IMF, EIU.

□ 2010년 경제성장률은 플러스 전환

- 우크라이나는 주요 수출품인 철강의 국제가격 상승, 해외자본 유입 및 내수 확대 등에 힘입어 꾸준한 경제 성장세를 시현했으나, 2008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15.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2010년에는 주요 수출품목인 철강 가격 상승세 및 내수 회복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한 것으로 추정됨.
 - 2010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전년의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1분기 4.8% 및 2분기 5.5%를 기록하였으나, 하반기에는 기저효과 감소 및 가뭄에 따른 농업 생산성 저하로 인해 3분기 3.6% 및 4분기 4.2%를 기록하는 등 성장이 둔화된 것으로 분석됨.
- 2011년에는 주요 교역 대상인 EU 국가들의 경제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경기 회복세 지속, 철강 가격 상승에 따라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소비자물가의 상승 압박 우려

- 우크라이나는 2006~09년 연평균 약 15%대의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했으며, 특히 세계적인 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 급등으로 2008년에는 25.2%를 기록해 소비자물가 급등 현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음.
- 2009년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 감소, 해외자본 유입 감소 등 전년 대비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되었으나, 경기 부양을 위한 유동성 공급 확대 및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15.9%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했음.
- 2010년에는 소비심리 침체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한 자릿수로 둔화되어 9.4%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나 2011년에는 가스 및 식료품 가격 상승 등으로 다시 두 자릿수의 물가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2009~10년에는 재정수지 적자 악화

- 2009년 재정수지는 2010년 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 등의 사회복지 부문 예산이 확대됨에 따라 GDP 대비 6.5%의 적자를 기록했음.
- 우크라이나 정부는 2010년 중 GDP 대비 5.3%의 적자예산을 목표로 설정했으나 7월에는 GDP 대비 5%로 수정했음. 그러나 세수 유입이 원활하지 않고 재정지출이 확대되어 IMF 구제금융 지원 조건상 6.5%의 재정적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7%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1년에는 긴축재정 계획이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재정적자 규모가 4%대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중공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취약한 소비재 산업기반

- 우크라이나 경제는 중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주로 저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2009년 기준 철강 제품이 총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해 철강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대외 환경 변화에 취약함.
- 정부의 투자 부진으로 인해 가전제품 등 소비재 생산 기반, 교통 인프라 및 시설 기반 등이 미약한 편이며, 구소련 시대에 각광받았던 항공, 우주 분야 등의 국제경쟁력도 점차 약화되는 추세임.

□ 러시아에 대한 과도한 에너지 의존

- 우크라이나는 철강, 화학 등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석유 수요의 80%, 가스 수요의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특히 러시아에 대한 석유 및 가스 수입의존도가 높아 양국관계의 경색에 따라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음.
 - 러시아가 2006년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 할인 가격혜택을 폐지해 2006년, 2009년 및 2010년 초 양국간 가스 분쟁이 발생해 가스 공급이 중단된 바 있음.
 - 우크라이나는 2011년 5월 말 시장 가격에 연동되어 책정되고 있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가격을 입방미터당 240달러 수준으로 인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러시아 측은 이를 거절함. 현재 장기계약 조건에 따른 4분기 예상 가스 공급가격은 입방미터당 500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크라이나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됨.

* 러시아산 가스 1,000 m³당 수입가격(달러) : 179.5('08) → 260('09) → 230~240('10) → 264('11. 1분기) → 295('11. 2분기)

나. 성장 잠재력

□ 풍부한 광물자원 및 CIS 국가 중 2위의 인구 보유

- 우크라이나는 CIS 국가 중 영토 면적 기준 3위의 국가로 철광석(매장량 세계 1위), 망간(매장량 세계 1위), 석탄(매장량 세계 6위), 우라늄(매장량 세계 10위) 등 풍부한 광물자원과 비옥한 농토를 보유하고 있음.
- CIS 국가 중 2위 규모의 4,550만 명의 인구를 바탕으로 향후 소비심리 회복에 따른 내수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높은 편임.

□ 대 서방 에너지 수송로 역할과 친서방정책을 통한 시장 확대 가능성

- 유럽과 러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에너지 및 물류의 주요 통로로서 매년 상당한 규모의 에너지 통과세(transit fee)를 확보하고 있음.
-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80%가 우크라이나를 통과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유럽 국가들의 가스 수요 증가로 통과량이 약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통과세 수입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다. 정책성과

□ IMF로부터 대기성 차관의 추가 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 우크라이나는 2010년 7월 28일 IMF의 대기성 차관(총 151억 5천만 달러, 지원기간 2.5년) 지원에 합의했으며, 즉시 IMF로부터 19억 달러를 지원(집행)받음. 2010년 12월에는 2차로 15억 달러를 추가 지원받았음.

- IMF 권고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국내 가스 공급가격 추가 인상, 연금 부문 개혁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하나 그 추진 시점과 규모가 불명확해 차관의 3차분(15억 달러) 지원이 지연되고 있음.
- 여성의 퇴직 연령을 현재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 법안이 2010년 12월 의회에 상정되었으나 친정부 노동조합의 거센 반대와 여당의 의지 부족으로 금년 6월에야 검토를 시작했음.

□ 국내 가스 공급가격 인상 조치를 통한 재정적자 감축 노력

- 우크라이나 정부는 IMF 권고에 따른 가스 소매시장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2010년 7월 가스 공급 가격을 2010년 8월 1일자로 50% 인상하기로 결정함.
- 가스 공급가격 인상조치에 따라 국영가스공사인 나프토가즈(Naftogaz)의 취약한 재정상황 개선과 재정적자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2011년 4월 IMF 권고에 의거 가스 공급가격을 추가 50%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국민 여론을 감안하여 인상 시점이 지연되고 있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e
경 상 수 지	-1,617	-5,272	-12,763	-1,732	-2,884
경 상 수 지 / GDP	-1.5	-3.7	-7.1	-1.5	-2.1
상 품 수 지	-5,194	-10,572	-16,091	-4,307	-8,712
수 출	38,949	49,840	67,717	40,394	52,191
수 입	44,143	60,412	83,808	44,701	60,903
외 환 보 유 액	21,843	31,786	30,801	25,557	33,327
총 외 채 잔 액	54,512	79,956	101,700	103,300	112,900
총 외 채 잔액 / GDP	50.6	56.0	56.5	88.1	81.9
D S R	18.2	17.5	19.9	43.9	34.8

자료: IFS, EIU.

□ 2010년 총수출 25% 이상 증가

- 2007~08년 총수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철강 가격의 강세로 연간 30%대의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해 왔으나,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해외 철강 수요가 감소해 총수출이 2008년 대비 35% 이상 감소했음.
- 2010년에는 세계 철강 수요가 회복되었고 철강 가격이 상승세로 접어들어 총수출이 전년 대비 25.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1년 총수출 규모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2010년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2.1% 수준으로 소폭 악화

- 2006~08년 내수 확대에 따른 수입 증가, 에너지 수입가격 상승 등으로 상품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면서 경상수지 적자 폭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
- 2009년에는 대외 수요 증가 및 철강 가격 상승에 힘입어 수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내수 부진으로 인해 수입 규모가 위축되어 경상수지 적자 폭이 크게 축소되었으나, 2010년에는 내수 회복세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면서 적자가 다소 확대되었음. 2011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외환보유액 증가세로 전환

- 우크라이나의 외환보유액은 2007년까지 정부의 민영화 추진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 등으로 증가세를 나타내 2008년 7월 373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256억 달러로 감소했음.

- 2010년 말에는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외환보유액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 수준인 333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외환보유액은 월평균수입의 5개월분 수준임.

□ 총외채잔액은 경제규모에 비해 과중한 수준

- 우크라이나는 2008년까지 경기 호황이 지속됨에 따라 은행 및 기업의 해외차입이 크게 증가해 총외채잔액이 2005년 말 333억 달러에서 2008년 말 1,017억 달러로 급증함.
- 2008년 하반기 이후 해외차입 여건이 악화되었으나 2008~09년 총외채잔액은 1,000억 달러를 상회했으며, 2010년 말에는 총외채잔액이 1,129억 달러로 추정됨.
- 2008~10년 중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2008년 56.5%에서 2010년 81.9%로 상승했고,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의 비중도 2008년 111.7%, 2009년 175.5% 및 2010년 152.6%로 연도별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음.

□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10년 35% 수준 추정

- 2009년 DSR은 총수출 감소로 40% 수준을 상회함. 2010년에는 총수출이 증가하면서 DSR이 35%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2010년 10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통령 권한 강화

- 2010년 10월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는 일부 대통령 권한을 의회에 양도하는 2006년의 헌법 개정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음.

- 동 결정에 따라 정치적 안정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나 오렌지 혁명의 성과가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음.

○ 대통령은 현재 결정으로 의회의 동의없이 총리 후보 선정, 장관 해임, 정부 해산을 결정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보유하게 되었음.

□ 2010년 이후 연립정부 내 정당간 갈등 미미

○ 현재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당(여당)을 제외한 리트빈 블록, 공산당 등의 세력은 미약한 편이고,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지역당을 중심으로 권력을 집중하며 연정 내 큰 갈등 없이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티모셴코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야당 세력이 있으나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당성을 기반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음.

* 차기 총선: 2012. 10. 예정

2. 사회 안정 및 소요/사태

□ 언어, 종교 문제 등으로 인한 동서 지역간 갈등 지속

○ 우크라이나 내 언어, 종교, 문화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동서 지역간 대립과 갈등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어 국민 통합 및 정치·경제적 화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철강, 화학 등 공업지대인 동부지역은 친러 성향의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하는 수도 키예프 중심의 서부지역은 티모셴코 전 총리를 지지함.

□ 국지적인 소요사태 발생 가능성 잔존

- 2004년 오렌지 혁명 이후 대규모 소요 사태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으나 2008년 이후 경기침체와 취약한 공공 재정 상황, 향후 예정되어 있는 가스 공급가격 추가 인상 및 연금 제도 개혁 조치 등의 영향으로 국지적인 소요 사태 발생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음.
- 야누코비치 대통령 집권 이후 공정 선거, 언론의 자유, 야당의 정치적 자유 등이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긴축재정 정책과 가중된 경제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축적되고 있음.

3. 국제관계

□ 러시아와의 갈등 잠재

-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2010년 1월 취임 이래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제안한 새로운 유럽안보조약기구의 창설 지지, 러시아어의 제2공용어 복귀, 러시아 흑해함대의 주둔 연장, 가스 협력 확대 등 친러시아 정책을 취해왔음.
- 양국은 2010년 3월 5일 정상회담을 통해 가스를 포함한 에너지 협력 협상을 조속히 진행하고, 통상, 우주, 항공기 제작, 원자력, 나노기술, 군사기술, 정보기술 투자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음.
- 최근 우크라이나가 EU와의 FTA 체결을 러시아-카자흐스탄-벨로루시 3국 관세동맹 가입보다 중요시하고 있어 러시아와의 갈등 관계가 잠재되어 있음.

□ EU와의 협력 강화

- 우크라이나는 오렌지혁명 이후 친서방 성향의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5월에는 WTO에 공식 가입한 바 있음.
-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은 아직 요원하나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2007년 말 만료된 EU와의 동반자협력협정(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PCA)을 대체하는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신헌정 체결, EU와 FTA 체결 추진 등 EU와의 관계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나프토가스의 채무재조정 방안 확정

- 나프토가스는 2009년 9월 말 만기인 유로본드 5억 달러를 상환하지 못해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2009년 11월 이를 포함한 총 16.65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재조정 방안을 확정함.
 - 5억 달러의 유로본드는 만기를 5년 연장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보증을 제공하기로 합의
 - 총 11.65억 달러에 달하는 금융기관 대출(Deutsche Bank 3.9억 달러, Credit Suisse 5.5억 달러, Depha Bank 2.2억 달러)은 16억 달러의 유로본드(2014년 만기)로 전환

□ OECD 회원국의 ECA에 대한 연체실적 있음

- 2010년 9월 기준 OECD 회원국의 ECA 인수승인 잔액은 단기 559.3백만 달러, 중장기 3,740백만 달러이며, 이 중 단기 1.2백만 달러(0.2%) 및 중장기 424.7백만 달러(11.3%)가 연체 중이며 중장기 연체금액 중 341.8백만 달러는 회수 불능 상태임.

2. 국제시장 평가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D2('10. 10.)	D2('09. 12)
OECD	7등급('11. 1.)	7등급('10. 1.)
S&P	B+('10. 7.)	B('10. 5.)
Moody's	B('10. 7.)	B-('09. 11.)
Fitch	B2('11. 6.)	B2('09. 5.)

□ 2008년 하반기 이후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우크라이나 등급 하락

- OECD는 2009년 1월 정치 불안정, 재정적자 악화,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등을 이유로 우크라이나의 국가 신용등급을 5등급에서 6등급으로 한 등급 하향 조정한 데 이어, 2009년 4월 과도한 민간부문 외채, 연립정부 갈등 심화, IMF 구제금융 지원조건에 대한 이행의지 불충분 등을 들어 재차 1단계 하향 조정해 최하등급인 7등급으로 부여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은 고인플레이션, 재정수지 및 상품수지 적자 확대, 정치적 불안정 등을 이유로 우크라이나의 신용등급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함.
 - S&P는 우크라이나의 신용등급을 2008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3회에 걸쳐 4단계나 하향 조정했으며, Fitch도 2008년 9월 이후 2009년 11월까지 3회에 걸쳐 하향 조정했음.

□ 2010년 들어 우크라이나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

- 2010년 들어 우크라이나가 정치 안정세와 경제 여건 회복세를 나타냄에 따라 S&P는 국가신용등급을 3월, 5월 및 7월 3회에 걸쳐 상향 조정했으며, Fitch도 7월 IMF 대기성 차관 지원 합의 후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했음. Moody's는 2009년 5월 이후 B2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OECD는 2010년에 이어 2011년 1월 회의에서도 IMF 긴축재정정책 권고 이행의지 부족, 은행산업의 건전성 악화 등을 이유로 7등급이 유지됨.

□ 주요 ECA 인수태도

- 미 수은 : 제한적 인수 가능
- ECGD : 최고부보율 적용
- Hermes :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1991. 2. 10 (북한과의 수교 : 1992. 1. 9)

- 주요 협정: 무역협정('95), 항공협정, 투자보장협정(이상 '96), 이중과세방지협정('99), 원자력협력협정('01), 세관협력협정('03), 외교관여권사증면제협정('06), 원자력협력협정('07)

□ 2010년 양국간 교역규모 회복세

- 양국은 1990년 9월 국교를 수립한 이후 양국간 경제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어 2008년 기준 양국간 교역규모는 약 26억 달러를 기록함.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53% 감소한 12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했으나, 2010년 15억 달러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나타냈으며, 2011년 1~5월 6.5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는 2011년 5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57위 교역대상국임.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및 합성수지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철강제품, 고철 및 석탄임.

□ 우리나라의 대 우크라이나 직접투자 실적 미미

○ 2008년 우리나라의 대 우크라이나 직접 투자액이 558만 달러까지 증가했으나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투자 금액은 8만 달러로 급감했으며 2010년에는 9.5만 달러를 기록했음. 우리나라의 대 우크라이나 직접투자 누계액은 2011년 3월 말 기준 2.5억 달러(30건)임.

○ 2011년 1~3월 우리나라의 대 우크라이나 직접투자 금액은 6.4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 연도별 투자금액: 3.3만 달러('07), 558만 달러('08), 8만 달러('09), 9.5만 달러('10)

<표 4> 한·우크라이나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 출	1,773,294	426,435	714,221	자동차, 반도체, 합성수지
수 입	824,429	792,950	779,726	철강제품, 고철, 석탄
합 계	2,597,723	1,219,385	1,493,947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 의견

□ 우크라이나는 2009년 하반기 이후 주요 수출품목인 철강 가격 상승에 따른 총수출 증가, 2010년 IMF 구제금융 지원 재개 등에 힘입어 점진적인 경기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가스 및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 경제 규모에 비해 과중한 총외채잔액 규모는 향후 우크라이나 경제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우크라이나는 풍부한 광물자원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총수출에서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를 차지하는 등 수출품목이 편중되어 있으며, 러시아가 수출하는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음.
- 2010년 1월 당선 이후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데 성공한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권한이 확대되었고 연립정부 내 정당간 갈등은 미미한 수준이어서 향후 정치적 안정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친러 성향의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러시아와의 관계가 개선되었으나 우크라이나는 최근 EU와의 협력관계를 우선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러시아와의 갈등 관계가 잠재되어 있음.
- 2008~09년 우크라이나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던 S&P와 Fitch는 2010년 들어 이를 다시 상향조정했으나 아직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는 회복되지 않고 있음.

책임조사역 허정옥 (☎02-3779-5708)

E-mail: johuh@koreaexim.go.kr